



벤아민과 브레히트

에르트무트 비치슬라 지음

평전의 신기원을 이룬 연구서

발터 벤아민과 베르톨트 브레히트는 20세기 가장 중요한 비평가, 가장 위대한 독일 극작가로 꼽힌다. 두 예술인이 1920년대 말부터 1930년대 말까지 깊이 교류한 역사의 윤곽을 세세히 드러난 평전이 출간되었다. 독일의 문예학자이자 훔볼트 대학 명예교수 에르트무트 비치슬라가 펴낸 '벤아민과 브레히트'는 두 사람의 저술과 잡지 기획 등을 중층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책이 평전을 넘어 연구서로 읽히는 이유는 두 문인의 작품 집필 과정, 당대의 수용 과정 등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기 때문이다. 저자는 벤아민과 브레히트가 남긴 방대한 서신 자료들과 대화 목록을 바탕으로 우정의 존재적, 정치적 의미를 밝혀낸다.

독일 괴팅겐 대학에서 두 문인에 관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역사 운미애씨는 "정치적 브레히트와 '정치적 벤아민'을 둘러싼 토론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한다.

<문학동네·3만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권오길의 찾은 발칙한 생물들

권오길 지음

주변에 숨어있는 기이한 세계

주변에 숨어 있지만 스쳐 지나치기 쉬운 생명들의 흥미롭고 기이한 이야기를 담은 책이 나왔다. 강원도 생물학과 명예교수인 권오길의 펴낸 '발칙한 생물들'은 다종다양한 생물들을 다채로운 우리말로 소개한다.

죽을 때까지 자신이 낳은 알들에게 물을 흘려보내며 살뜰히 보살피는 문어, 온몸으로 양분을 흡수하며 몸속에서 7m나 자라는 촌충, 너구리 똥도 저 나를 만큼 평화롭고 사회적인 동물 오소리에게 이르기까지 미처 알지 못했던 생물들의 세계가 펼쳐져 있다.

책의 특징은 과학적인 내용을 풍부한 우리말 어휘로 풀어내고 있다는 점이다. 생물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데 '골뎀(도토리)', '구덕(구덩이)', '영세관(매우 가난하고 궁한 것을 이르는 말)' 같은 어휘를 사용한다. 글맛을 살리기 위해 이러한 단어는 별도의 각주를 달아 이해를 돕는다.

<유유문화사·1만3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보석, 세상을 유혹하다

윤성원 지음



"고대 그리스인들은 다이아몬드의 눈부신 광채는 계속해서 타오르는 사랑의 불꽃으로, 단단한 성질은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겠다는 의지로 해석했다. 또한 다이아몬드가 최초로 발견된 인도에서 다이아몬드는 약의 기운을 막아주는 마력의 존재였다. 고대의 점성술사들은 다이아몬드가 영원한 사랑을 도와주고 주술이나 악몽에서 벗어나게 해준다고 믿었다. 무엇보다 땅속에서 최소 1억 년에서 수십억 년이라는 긴 시간을 견뎌냈으니 '영원한 사랑'이라는 말보다 더 이상 어울리는 표현은 없었으리라." (본문 중에서)

여자들은 왜 다이아몬드에 열광할까? 왜 다이아몬드는 연약의 증표로 사용될까? 답은 간단하다. '단단한 성질' 때문이다.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 외의 어떤 광물로도 굽히지 않을 만큼 단단하다. 상처만 주지 않는다면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다.

우리에게 익숙한 '이수일과 심순애'는 사랑을 버리고 돈을 택한 여성의 비극을 다룬 이야기다. 원래 이 이야기는 19세기 말 영국 런던을 배경으로 한 영문소

보석의 매력에 유혹당한 인간들의 이야기

설 '여자보다 약한 것'을 각색한 것이다. 두 남녀의 비극적 사랑을 그린 '이수일과 심순애'는 작금의 현실을 대입해도 무방하다. 물질적 가치를 사랑의 가치보다 우선시하는 세대 때문이다.

일찍이 영국의 대문호 셰익스피어는 이런 말을 했다. "말 못하는 보석이 인간의 말보다도 더 힘 있게 여자의 마음을 움직인다"고. 혹여 (김중배에게 사랑하는 여인을 빼앗긴) 이수일이 셰익스피어의 말을 알고 있었다면 이야기는 달라지지 않았을까.

영화 '도둑들', '블러드 다이아몬드', '색, 계', '진주 귀고리를 한 소녀'의 주요 소재가 보석이다. 영화의 키워드이자 스토리를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엘리자베스 테일러, 재클린 오 나시스, 심프슨 부인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이들 역시 보석이라는 카테고리에 묶을 수 있다. 이들은 한 시대를 풍미한 주얼리 아이콘들로 보석 컬렉션을 완성했던 스타일리스트들이다.

보석 이면에 드리워진 끈적끈적하면서도 화려한 인간들의 이야기를 다룬 책이 나왔다. 한양대 보석학과 겸임교수 윤성원 씨가 펴낸 '보석, 세상을 유혹하다'는 보석에 얽힌 이야기에 초점을 맞춘다.

저자는 주얼리의 역사, 영화 속에 등장한 보석, 위대한 주얼리 디자이너를 매개로 보석의 모든 것을 풀어낸다. 책 중간마다 아름다운 주얼리 이미지들이 수록돼 있어 이해를 돕는다.

영화 '진주 귀고리를 한 소녀'는 1665년 화가 요하네스 베르메르의 '진주 귀

고리를 한 소녀'가 모티브가 되었다. 영화는 그리트라는 하녀(16세)가 화가인 베르메르의 집에 들어오는 것으로 시작된다. 베르메르는 그리트에게서 영감을 받아 그녀의 초상화를 그린다. 물론 아내 내 모르게 말이다. 그러나 작품을 완성했지만 무엇인가 허전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베르메르는 그리트에게 진주 귀고리를 착용하게 하고 그림을 그린다.

그러나 여자의 욕망은 본능적이다. 베르메르의 조각지치는 초상화를 발견하고, 하녀인 그리트를 내쫓는다. 그로부터 10년 후 베르메르가 세상을 떠나며 그리트에게 진주 귀고리를 남긴다. 두 사람, 베르메르와 그리트는 비록 육체적인 관계는 없었다. 그러나 둘 사이에 불온한 '욕망'이 오갔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어쩌면 그림과 영화는 진주라는 보석에 '정결'이 아닌 '욕망'의 이미지를 투사했을 것이다.

책은 아름다운 세상을 연 주얼리 디자이너들의 세계도 다룬다. 전설의 디자이너 장 솔렘베제, 살아 있는 전설 JAR, 주얼리계의 시인 로렌스 보이어 등 보석을 예술작품으로 승화한 이들의 장인정신을 조명한다. 책을 관통하는 주제는 명료하다. 주얼리는 '아름다움에 대한 감각과 가치관의 교차점'이라는 것이다.

"자연의 산물로 소개 가치, 감성 가치, 사회 문화적 가치, 패션 가치를 충족시키는 주얼리를 좀 더 이해하고, 아름다움에 대한 경험치를 높일 수 있기를 희망해본다." (시그마북스·1만6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전쟁에는 목표를 수립하고 달성 방법을 설계한 사람들이 있다



제국을 설계한 사람들

폴 케네디 지음

흔히 2차세계대전의 노르망디 작전은 미국의 대대적인 물량 공세 덕분에 승리로 장식됐다고 여긴다. 하지만 노르망디 작전의 성공에는 프랑스 레지스탕스의 활약이 크게 기여했다.

연합군 작전기획자들에게는 그들의 존재는 추가 보너스였다. 프랑스 레지스탕스는 현지 독일군에 관한 중요한 정보의 원천이었다. 또 독일군 병력 수습만을 철도 경비나 민가 수색 등과 같은 부

차적 활동에 투입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주역이었다.

'강대국의 흥망'의 저자 폴 케네디의 '제국을 설계한 사람들'은 전쟁에 참여한 개인의 활약이 전쟁 연구에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저자는 "젊은 알렉산더가 인도를 정복했다. 오로지 혼자서 해낸 것인가? 카이사르가 갈리아를 무찔렀다. 그의 곁에는 요리사가 한 명도 없었을까?"라는 베르톨트 브레히트의 시 '어느 책 읽는 노동자의 의문'부터 인용한다.

명량해전의 승리는 이순신 장군의 철저한 준비와 전략 덕분이었지만 묵묵히 목숨을 내놓고 전투를 수행한 수많은 백성의 희생도 있었다는 것이다.

책에 등장하는 도목기사 벤 모릴은 건 축인력을 모아 건설대대를 창설했다. 이

후 아시아, 태평양 전역에서 활주로 111개와 부두 441개를 건설했고, 기술인 240만 배럴을 저장할 수 있는 연료 탱크를 만들었다. 또 병사 150만명이 생활할 수 있는 숙소와 환자 7만명을 수용하는 병원도 지었다. 연합군의 승리는 바로 이들의 작품이었다.

저자는 1942년 말부터 1944년 여름까지의 전쟁 중반기를 집중조명한다. 이를 통해 전쟁 승리의 요인을 분석하면서 과학자, 기술자 등 개인과 조직의 전략이 어떻게 실행됐는지 꼼꼼히 짚는다.

지휘관이나 병사들보다 전쟁 목표를 수립하고 그 달성 방법을 설계한 문제 해결사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1세기북스·2만8000원>

/오광복기자 kroh@kwangju.co.kr

당신은 파수꾼 하나 세워두고 있습니까?



파수꾼

하퍼 리 지음

'앵무새 죽이기'의 저자 하퍼 리는 전 세계적으로 4000만부 이상 판매고를 올렸던 인기 작가다. '앵무새 죽이기'는 1961년 당시 풀리처상을 받을 만큼 선 풍적인 인기를 끌었으며 현재까지도 매년 미국에서 1백만 부 이상씩 팔리는 스테디셀러다.

'앵무새 죽이기' 이후 55년 만에 하퍼 리의 두 번째 소설 '파수꾼'이 나왔다. 엄밀히 말하면 '파수꾼'은 '앵무새 죽

기'의 전작이자 후속작이다. '앵무새 죽이기'를 집필하는 데 기반이 되었던 첫 작품인 데다가 '앵무새 죽이기'의 주인공이 20년이 지나 성장했을 때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소설은 50년 전에 쓰여졌지만 그 주제는 여전히 유효하다. '앵무새 죽이기'가 1930년대 미국을 배경으로 한 인종 차별, 인권 유린에 경종을 울린 것처럼 '파수꾼'도 그와 같은 범주에 속한다. 차이가 있다면 전자의 주인공이 여섯 살 아이였다면 후자는 스물여섯 살의 성인이라는 점이다. 둘 다 성장 소설의 형식을 띠지만 '파수꾼'은 이제 어른들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았다는 점도 다른 부분이다.

<열린책들·1만28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들과 함께 걸어온 길 63년. 광주일보.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

단비플라워. 365일 연중무휴 가격변동 없음! 경조화환 7만원 시외 8만원. 전화. 062)233-9961 Fax. 062)672-9961.

특허방수. 하자없이 20년은 너뿐이기는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511-0444. 010-6603-0405.